

법무부 ‘교정작품전시회’의 사례 분석을 통한 방향성 제고에 관한 연구

윤 여 향^{†,1}, 김 지 수²

¹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²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A Study on Improvement of Direction through Case Studies of ‘Correctional Industry Works Exhibi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Yeoh-Hang Yoon^{†,1}, Ji-Soo Kim²

¹Department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121-791, Korea

²Department of Design & Craft,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Seoul 121-791, Korea

Abstract: Most of crime occurrence in Korea is caused by ex-convict. Various correctional training programs support convicts to reform a criminal as a treatment program. This study is about the most crucial ‘Correctional Industry Works Exhibition’ that is hos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supervised by Seoul Correctional Service and other related events. ‘Correctional Industry Works Exhibition’ divides into the convicts’ works in prison, literary works and staffs’ literary works. Based on the working experience as a judge for the last six years(2009~2014) and analysis of research cases, the writer grasps the problems that needs to be improved and suggests the strategies. In the future, ‘Correctional Industry Works Exhibition’ will be a festival for convicts and prison officers that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and will vitalize the works in prison that will produce good products. Moreover, it can be expected to support the social integration of prisoners and repeated crime after released from prison.

Keywords: ‘Correctional Industry Works Exhibition’, Correctional Training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한국 사회는 가정해체, 사회 심리적 붕괴, 도덕불감증 등 몇 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기초질서가 위협받고 범죄의 상존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서 2011년의 경우 전체 범죄는 다소 감소했지만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특히 강력범죄가 2007년 20,922건에서 2011년에는 29,248건으로 재범 이상 범죄자의 구성비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최광진 2013). 또한 흉악·폭력범죄의 상당부분이 전과자였음을 감안한다면 현행 재소자들에 대한 교정(矯正) 및 교화(教化)활동의 필요성은 매우 중차대하다 할 수 있다. 교정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의 구금(拘禁)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민주시민으로 다시 사회에 정착시킴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재소자 교화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무부에서는 매년 ‘교정작품전시회(矯正作品展示會)’를 개최

2015년 6월 16일 접수; 2015년 7월 14일 수정; 2015년 7월 15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윤 여 향 (yohang@empal.com)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3회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교정작품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이 향상되고 재범율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은 수용자의 교화와 교정을 이해하고 무작위 범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무부 주최의 ‘교정작품전시회’를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재소자들의 인간성 존중에 바탕을 두고 그들 스스로 성장 발전하려는 의욕과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교정교육의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교화에 이르려는 작품 활동의 방법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전시회 기간 중 다양하게 병행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그중 수형자의 교도작업 제품의 전시, 판매를 소개함으로써 교정행정, 교도작업 제품의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교정교육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화를 통해서 재소자들의 변화와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수용자들 또한 예술 창작 활동의 방법으로 정서순화 및 기능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출소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성공적인 사회 정착 기반조성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논자가 지난 6년간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한 바 있는 법무부에서 주최하고 서울지방교정청이 주관하는 ‘교정작품전시회’ 행사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교도작업 작품, 수용자 문예작품, 직원 문예작품을 포함한 교정작품전과 동시에 병행 개최되었던 기타 부대행사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4년 10월에 치른 ‘제43회 교정작품전시회’를 포함한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고, 법무부와 예하 교도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확인 작업 등을 통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외국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다른 나라에는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교정교화사업인 ‘교정작품전시회’를 연구 분

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2009년 인천, 2010년에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의 4개 지방교정청별로 동시에 개최되었던 전시와, 비교적 최근인 2011~2014년 서울지방교정청이 주관해서 전시한 6년간의 ‘교정작품전시회’ 중 교도작업 작품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관련 논문과 보고서, 인터넷 자료 및 ‘교정작품전시회’의 작품집 등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교정작품전시회’와 병행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도사업과 기타 부대행사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사례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출하고, 향후 ‘교정작품전시회’의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2. 법무부 ‘교정작품전시회’ 개요

2.1.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배경

형무관학교는 1957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새 출발’이라는 명칭으로 전국 재소자 작업 및 문예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문예작품 전시회는 교화행사의 일환으로 이전에도 개최된 적이 있으나 형무작업제품 전시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전국 형무소에서 생산되는 작업제품을 일반에게 널리 선전하고, 아울러 우수작품의 시상을 통해서 작업제품의 품질향상과 형무작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 전시회의 성과에 힘입어 재소자 작업 및 문예작품 전시회는 1960년대 이후 발전을 거듭하면서 매년 교정행사의 하나로 열리고 있다(법무부 교정본부 2010).

이후 법무부에서는 1962년 서울 덕수궁 전시실에서 제1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이래 2014년까지 43회의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1985년(14회)부터 2009년(38회)까지는 서울과 지방에서 교차적으로 개최하였고, 2010년(39회)에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의 4개 지방교정청별로 동시에 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전시회 개최를 지속하고 있다. 단, 1972~1973년과 1975~1982년까지, 총 10년 동안은 동 전시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정확한 이유는 여러 경로로 상담과 확인 작업을 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자료 유실 및 부족 등으로 파악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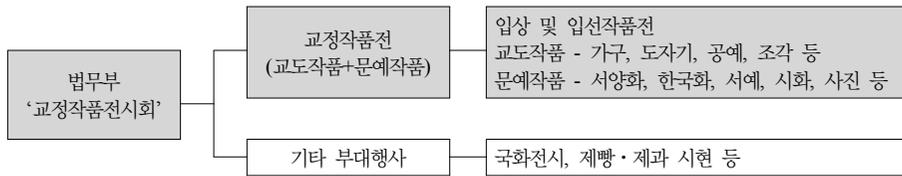


Fig. 1. The Overall Composition of ‘Correctional Industry Works Exhibition’.

2.2. ‘교정작품전시회’ 내용 및 구성

‘교정작품전시회’는 크게 2가지의 전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생활 중 수형자들의 집념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출품작을 전시하는 교정작품전과, 그리고 국화전시, 제빵·제과 시식 코너, 전통 차 시음회, 관현악 연주, 핸드프린팅(Hand-printing), 토피어리(Topiary) 등 다수의 기타 부대행사로 Fig. 1과 같이 구성된다.

2.2.1. ‘교정작품전시회’

법무부가 주최하는 ‘교정작품전시회’는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한 수용자의 정서순화 및 기능향상 기회 제공 등으로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둔다. 이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 제작한 작품의 전시, 판매를 통한 교정행정 및 교도작업 제품의 홍보 극대화에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은,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수형자가 직접 제작한 교도작업 작품과 문예작품,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및 경비교도 등의 직원이 출품한 문예작품 등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입상 및 입선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고 시상하는 것이다.

2.2.2. 교도작업의 종류 및 장점

교도작업이란 형 집행법에 근거한 형 집행의 주요 형태로서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한 각종 생산

및 용역활동을 말한다. 그 종류는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교도소에서 시설, 재료, 노무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직영작업, 외부업체가 작업에 사용할 장비와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교도소는 시설 및 노동력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임가공(賃加工)비를 지급받는 위탁작업, 모범수형자를 민간기업체에 통근시켜 일반근로자와 같이 생산 공장에서 작업하게 하고 약정임금을 지급받는 외부통근작업, 교도소 구외 부지에 작업장·창고 등을 갖추고, 이용자는 작업에 사용할 장비 및 재료 등을 투입하여 교도소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작업을 시행하고 약정임금을 지급받는 개방지역 작업, 일반 사회근로자의 작업형태와 유사하게 작업 시간 중에는 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점전, 운동, 교화활동 등의 처우는 휴일 중에 실시하는 자립형작업 등이 있다(Table 1).

이렇게 만들어진 교도작업 제품은 이윤보다는 수용자의 기술연마와 근로정신 함양 등을 위하여 만들어지며 일반 시중의 유사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발생한 이윤은 수용자 직업훈련 등에 재투자되므로 교도작업 제품 구입은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수용소 특성상 노사문제 등의 갈등 없이 안정된 공급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제43회 교정작품전시회 도록 2014).

Table 1. Prison Labor Products and Status of Corporate Participation

구분	주요 생산품	참여 기업체	시행 기관
직영작업	목공, 인쇄, 화장지 등 19개 직종	-	대전(교) 등 25곳
위탁작업	쇼핑백, 운동복, 장갑, 생활용품 등	159개 업체	여주(교) 등 48곳
외부통근작업	미역가공, 자동차부품 등	11개 업체	창원(교) 등 11곳
개방지역작업	봉제, 다이어리, 에어필터 등	43개 업체	인양(교) 등 22곳
자립형작업	봉제, 자동차부품, 쇼핑백 등	85개 업체	부산(교) 등 31곳

Table 2. Category of Prison Labor Products

	목재	도자기	석재	한지	금속	기타
전통가구 및 공예품	서랍장, 수납장, 머릿장, 문갑, 선비상, 사방탁자 등	항아리, 차/접시세트	벼루, 문진			
생활가구	야외탁자, 차탁, 좌탁, 상, 좌경, 편백침대/식탁 등					
사무용가구	각종 책상/책장/서랍, 옷장, 장식장, 사물함 등					
선물용품	각종 등, 필통세트, 명함 합 등			합/상, 지등 등	귀/목걸이, 반지 등	비누, 수건
생활용품	위패 등		돌구이판 등			신발류

출처 : 제43회 ‘교정작품전시회’ 도록, 2014, p. 38~55

2.2.3. 교도작업 제품의 종류

전통가구는 향나무, 참죽나무, 느티나무 등을 사용하여 무형문화재나 명장 등 전문가의 지도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하거나, 식탁 류, 침대 류, 차탁 등 생활가구 및 각종 책상, 책장, 칸막이 등 사무용가구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현대적 기법으로 소량 주문도 주문자의 기호에 맞게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또한 도자기, 석재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고, 이밖에 사무용품, 생활용품, 공예품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Table 2).

2.2.4 기타 부대행사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교정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해마다 전시회 기간 중 국화전시나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화품평회나 제빵·제과를 시현하

기도 하고, 생활가구나 사무용품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전시하는 것이다(Table 3).

1) 국화품평회

국화재배를 통해 수용자의 심적 안정 및 정서순화를 도모한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 지방교정청 산하 7~10개 기관에서 총 200~230점 가량을 출품하고 전시한다. 꽃의 크기, 형상, 색채, 전체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금상, 은상, 동상 등 출품작의 수량 등을 종합해서 수상작을 정하여 전시한다.

2) 전국 교도관 음악회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동호회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발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교정 홍보를 목적에 두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직장생활에

Table 3. Concurrent Events

연도	회차	부대행사 내용
2009	제38회	관현악 연주, 전통차 시음회, 캐리커처 체험, 토피어리 체험 등
2010	제39회	관현악 연주, 전통차 시음회, 캐리커처 체험, 토피어리 체험 등
2011	제40회	관현악 연주, 전통차 시음회, 캐리커처 체험, 토피어리 체험, 음악공연 등
2012	제41회	국화전시, 보라미장터, 현악4중주 연주, 전통차 시음, 핸드프린팅, 토피어리 체험 등
2013	제42회	국화전시, 보라미장터, 현악4중주 연주, 전통차 시음, 가훈 써주기, 핸드프린팅, 토피어리 체험, 캐리커처 체험, 페이스페인팅, 직업훈련 생산품 제빵 시식코너 등
2014	제43회	국화전시, 보라미장터, 직업훈련 생산품 제빵 시식코너, 현악4중주, 전통차 시음, 핸드프린팅, 토피어리 체험 등

출처 : 제38회~제43회 ‘교정작품전시회’ 홍보 팸플릿



Fig. 2. Images of Exhibition including Sales of Products and Concurrent Events.

의한 스트레스 해소 및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작했다. 2011년에는 밴드 6팀과 어쿠스틱(Acoustic) 기타 2팀, 개인독주 6명, 스포츠댄스 1팀 등이 연주를 하였다.

3) 보라미장터

보라미장터는 편백도마·베개·독서대 등 목공예품과 양말·티셔츠 등 의류, 된장·고추장·생선묵 등 식품류, 그리고 화장비누·주방세제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교도작업 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점차 판매하는 물품의 가지 수를 늘리고 있다.

2.3. 외국의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

2.3.1. 미국

미국은 수형자를 위한 성인 기초교육과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의 학교 교육은 대부분의 수용자가 많은 교육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있다(Clements Bartollas 1998). 특히 수형자를 위한 성인 기초교육이 교정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수형자를 위한 교사는 자원봉사와 수형자로 동료 범죄자들의 실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일부 지역사회 자원봉사 교사들은 수형자들의 기초 교양 프로그램을 지도하여 출소 후 수형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수형자들의 독서, 작문, 산수

등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교사들은 직접교육, 독립학습, 컴퓨터 지원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를 이수한 수형자에게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실제로 수형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동기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송태호 2001).

또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수형자 자신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출소 후 관련 직업에 종사하게 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 수형자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낮은 임금, 이직률이 높은 천한 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범의 악순환을 막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조도현 2015).

2.3.2. 일본

일본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일본에서는 수형자가 석방된 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개개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신입교육, 수용 중 교육, 석방 전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박영태 1990). 행형시설에 있어서의 교육은 수형자의 개선, 자력갱생(自力更生)을 도모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작

업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교정활동에는 생활지도교육, 교과교육, 통신교육, 종교교육, 석방 전 지도 등이 있고, 교육은 직원은 물론 직원 이외의 민간협력자 등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들 교육활동에는 라디오, TV 등의 시청각 기자재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 수형자에게 되도록 직업적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형자에게 공식면허 혹은 자격을 취득시키거나 특별한 직업적 기능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다(김성화 2006).

2.3.3. 영국

영국의 교정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교도소, 청소년 교정시설, 구금시설 및 구치시설의 4종류로 나누어져

있다(김성화 2006). 여러 가지 교육 시행 중 주요 작업은 엔지니어링, 원예, 양재, 방직, 목공, 세탁, 부품 조립업 등이 있으며, 기타 약 4,440만 m²에 달하는 경지에서 농작물 경작과 축산을 하고 있다. 전 수형자의 27%에 달하는 인원이 시설 내의 관용부로 일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의 신축 및 관리에도 약간의 수형자가 동원되기도 한다(법무부 1990).

3. 법무부 ‘교정작품전시회’

3.1.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현황

‘교정작품전시회’는 일반사회 전문가의 작품전시회와는 달리 수용생활 중 여가시간을 선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수용자의 집념의 결집체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Table 4. Statistics of ‘Correctional Industry Works Exhibition’ per Annum

연도(회)	장소	작품 수(점)	연도(회)	장소	작품 수(점)
1962(제1회)	덕수궁 전시실	554	1993(제22회)	광주남도예술회관	1,080
1963(제2회)	덕수궁 전시실	548	1994(제23회)	세종문화회관	1,212
1964(제3회)	덕수궁 전시실	468	1995(제24회)	대구시민회관	1,260
1965(제4회)	덕수궁 전시실	524	1996(제25회)	과천시민회관	1,065
1966(제5회)	덕수궁 전시실	487	1997(제26회)	대전시민회관	1,304
1967(제6회)	덕수궁 전시실	698	1998(제27회)	세종문화회관	743
1968(제7회)	덕수궁 전시실	959	1999(제28회)	광주남도예술회관	793
1969(제8회)	덕수궁 전시실	1,672	2000(제29회)	과천시민회관 전시장	885
1970(제9회)	덕수궁 전시실	1,565	2001(제30회)	과천시민회관 전시장	889
1971(제10회)	국립공보관	1,721	2002(제31회)	대구문화회관	646
1974(제11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2003(제32회)	과천시민회관 전시장	656
1983(제12회)	세종문화회관	1,042	2004(제33회)	KBS대전방송총국전시관	591
1984(제13회)	세종문화회관	359	2005(제3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600
1985(제14회)	대구시민회관	358	2006(제35회)	대구문화예술회관전시관	600
1986(제15회)	세종문화회관	455	2007(제36회)	경기도문화의전당전시관	1,126
1987(제16회)	광주남도예술회관	422	2008(제37회)	KBS대전방송총국	723
1988(제17회)	세종문화회관	635	2009(제38회)	인천종합문화예술관	837
1989(제18회)	대전문화원	837	2010(제39회)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동시개최	1,197
1990(제19회)	교도작업제품전시관	1,097	2011(제40회)	과천시민회관 전시장	627
1991(제20회)	부산문화회관	620	2012(제41회)	과천시민회관 전시장	548
1992(제21회)	세종문화회관	1,022	2013(제42회)	과천시민회관 전시장	597
			2014(제43회)	과천시민회관 전시장	599

출처 : 대한민국 교정사 1.2.3

특히, 많은 제약이 있는 수용환경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최근인 제40회(2011년)부터 제43회(2014년)는 법무부가 주최하고 서울지방교정청의 주관 하에 단독으로 개최함으로써 재소자의 교도작업 작품과 문예작품, 직원 문예작품 등으로 더욱 풍성하고 안정적인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Table 4).

3.2. 심사 기준 및 수상 내용

3.2.1. 심사 기준

1985년 7월 23일에 개정된 '교정작품전시회'의 심사규칙에 따라 출품자격을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수형자와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및 경비교도로 제한하고 있다. 출품작은 교도작업 작품, 수용자 문예작품, 직원 문예작품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다시 교도작업 작품은 가구, 도자기, 공예, 서각 등으로 분류되고, 문예작품은 한국화, 서양화, 서예, 시화, 사진 분야 등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가구, 도자기, 공예 분야에 3~4명, 한국화, 서양화, 시화, 사진에 2명, 서예에 1~2명 등, 총 7명 내외의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3.2.2. 입상(선)작품 선정 범위

입선작품은 총 출품작의 약 35~65%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특선은 입선작에 비례하여 약 15~20% 정도에서 부문별로 선정한다. 입상작품은 특선작품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교도작업 작품은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3점, 동상 3~5점을 선정한다. 문예작품 중 수용자 부문은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을 선정하고, 직원 부문은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을 선정한다.

3.2.3. 수상 내용

지난 2009년~2014년 입상작품의 내역 및 시상금을 분석한 결과, 매년 특선작품을 대상으로 부문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하고 입상작품은 법무부장관 표창 및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교도작업 작품의 경우 대상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문예작품의 대상은 100만 원의 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Table 5).

3.2.3. 품목별 분류

본 공모전의 입상작 중 제38회부터 제43회까지의 대회 입상·입선작품을 교도작업은 가구, 공예, 도자기와, 문예작품은 한국화, 서양화, 그리고 서예로 분류해 봄으로써 현 전시회의 흐름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입상작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예부문이 35%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공예 20%, 한국화 16%, 그리고 가구가 14%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재검토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Table 6).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상(大賞)은 제38회부터 제42회까지 5년 연속으로 가구부문에서, 제43회는 도자기부문에서 차지한 것이다. 이는 교도작업 제품 판매에 있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통가구나 사무용가구와 각종 책상, 식탁 류, 침대 류 등 생활가구를 기호에 맞게 제작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여러 가지 용역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서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문에 의한 위탁작업 등의 폭넓은 용역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5. Number of Awardees

(법무부장관 표창 및 상금 지급)

부문	입상	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시상금 내역(만 원)	
							교도작업 작품	문예작품
계		23	2	3	7	11	대상 : 300	대상 : 100
교도작업 작품		10	1	1	3	5	금상 : 200	금상 : 50
문예작품	수용자	7	1	1	2	3	은상 : 150	은상 : 30
	직원	6	-	1	2	3	동상 : 100	동상 : 20

출처 : 제43회 '교정작품전시회' 회의 자료, 2014

Table 6. Number of Awardees by Category

‘교정작품전시회’ 수상작품 분류(교도작품+문예작품)							
구분 회(연도)	교도작품			문예작품			비고 합계
	가구	공예	도자기	한국화	서양화	서예	
제38회(2009)	22	56	10	31	16	98	233
제39회(2010)	11	7	16	14	10	25	83
제40회(2011)	48	37	18	46	5	74	228
제41회(2012)	29	45	21	44	7	100	246
제42회(2013)	32	52	27	24	8	78	221
제43회(2014)	29	49	44	18	5	77	222
합계(100%)	171 (14%)	246 (20%)	136 (11%)	177 (16%)	51 (4%)	452 (35%)	1,233 (100%)

출처 : 제38회~제43회 ‘교정작품전시회’ 도록

3.2.4. 교도소별 입상작 분포

제38회(2009)~제43회(2014) ‘교정작품전시회’의 각 교도소별 입상작(대상, 금상, 은상, 동상) 분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교도작업 작품은, 광주교도소의 경우 가구부문 입상작이 가구분야 전체의 31%로 편중되었고, 특히 안양교도소는 도자기부문 입상작이 전체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극히 왜곡되고 특정인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도소 자체의 시설 집중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자 지역적 특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광주교도소는 양질의 대형 가구제작 설비가 갖춰져 있고, 안양교도소는 자체 시설 뿐만 아니라 인접해서 경기도 이천이라는 천혜의 도자기 생산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예는 홍성교도소의 석공(石工)류 같이 재료에 따른 지역적 특징은 있지만 대체로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예작품은, 한국화의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서양화의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 서울구치소처럼 일부 편중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서예는 일부 교도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수상작을 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면작품의 특성상 저렴한 재료비, 제작비와 함께 교도작업의 입체작품보다 상대적으로 제작상의 수월함과 짧은 제작기간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Table 7과 같다.

4. ‘교정작품전시회’ 연구 분석

4.1. ‘교정작품전시회’의 문제점

최근의 교정정책이 교정행정의 실상과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인적, 물적, 장비 등의 부족으로 진정한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또한 ‘교정작품전시회’가 단지 보여 지고 마는 전시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점도 들 수 있다. 일례로, 제42회는 제41회보다 총 출품작이 49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액은 약 900만 원이 감소했다. 목공부문 폐공(廢工)에 따른 대작은 줄고 소품 위주로 출품해서 판매하고, 연고판매가 거의 대부분으로 일반인에게는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에 비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관람 인원은 283명이 증가한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교정작품전시회’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4.1.1. 작업기피 및 타 지방청의 무관심 증가에 따른 대작(大作) 감소

최근 사회현상으로 목공작업의 사양화 추세에 따른 작업기피 현상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제14회(대구시민회관, 1985)를 기점으로 제16회(광주남도예술회관, 1987), 제18회(대전문화원, 1989), 제20회(부산문화회관, 1991) 등 제39회(2010)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교정청과 서울지방교정청이 교대로 개최

Table 7. Distribution of Winning Products by Correctional Facilities

교도소	부문	교도작업 작품			문예작품		
		가구	공예	도자기	한국화	서양화	서예
광주교도소		7 (31)	3 (15)				1 (7)
안양교도소			2 (10)	12 (92)	1 (7)		2 (12.5)
대구교도소		3 (13)					1 (7)
홍성교도소			4 (20)		2 (12.5)		
여주교도소				1 (8)			
공주교도소		3 (13)	1 (5)		2 (12.5)		
군산교도소		1 (4)	4 (20)			1 (10)	1 (7)
청원교도소		1 (4)					
대전교도소		2 (9)	1 (5)		3 (20)	3 (30)	
천안교도소							1 (7)
청주교도소					3 (20)		1 (7)
창원교도소							1 (7)
경북북부교도소					1 (7)		1 (7)
전주교도소		2 (9)				2 (20)	2 (12.5)
영월교도소			1 (5)				
안동교도소					1 (7)		1 (7)
목포교도소		2 (9)			1 (7)	1 (10)	1 (7)
서울구치소		1 (4)				2 (20)	
진주교도소			1 (5)		1 (7)		
마산교도소						1 (10)	
부산교도소			1 (5)				
원주교도소			1 (5)				1 (7)
순천교도소							1 (7)
춘천교도소		1 (4)					
인천구치소			1 (5)				
합계(100%)		23 (100%)	20 (100%)	13 (100%)	15 (100%)	10 (100%)	15 (100%)

출처 : 제38회~제43회 '교정작품전시회' 도록

함으로써 1,000점 이상의 출품작이 나오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그러나 제40회(2011)~제43회(2014)는 4회 연속 서울지방교정청 주관 하에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타 지방교정청의 무관심과 참여도 부족으로 인한 대작 감소는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4.1.2. 출품작의 다양성 결여 및 작품 완성도 저하

가구 등 해마다 출품되는 대부분 작품의 디자인이 매년 비슷하고, 예술성, 기술성, 독창성 등의 결여로

창의성이 떨어져서 신선함을 주지 못하는 전통공예의 재현품에 그치고 있다. 마치 전통 전수자를 뽑듯 그저 손재주만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서 새로운 제작기법과 적합한 재료선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부 가구 및 목공예 작품의 경우, 도료 등 적합한 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목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아 문짝 유격(裕隔)현상, 곰팡이 발생, 뒤틀림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작품의 완성도가 저하됨으로써 교도작업 제품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판매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4.1.3. 기출품작의 재 출품으로 인한 업무 혼란 야기
매년 한 교도소에서 다양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따라 도자기만 출품되거나 목공예품만 출품되는 등 일면(一面)적인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각 교도소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소자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보여주기 못함은 물론 현실성이 떨어져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미판매된 이전 년도 출품작을 재 출품함으로써 민원제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 식상함을 주어 향후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4.2. '교정작품전시회'의 발전적 개선 방안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범죄의 동향 또한 유형적,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인들의 교정을 위해서는 현대적인 교육형에 입각한 융통성 있고 일관된 교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정작품전시회'의 성패는 교정공무원의 능력과 역할 수행에 달려 있으며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여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매회 전시회에 관한 현황 등을 DB로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여 발전적인 전시회가 되도록 노력하되,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변화 있는 교정제도 및 '교정작품전시회'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사료된다.

4.2.1. 교도작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설전시장 설치

'교정작품전시회'의 작품이나 교도작업으로 만들어진 제품 판매용 상설전시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에 국한되어 있고, 간헐적으로 인천벚꽃축제와 함께 교도작품 전시회를 열고, 대구에서도 여자수감자 위주로 만들어진 한지공예품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의 시청이나 관공서 등에 상설매장을 설치하여 판매 활성화를 유도시켜 결과적으로 재소자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2. 재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누진제도 도입
교정 작품의 판매는 이윤보다는 수용자의 기술연마와 근로정신 함양이 조성됨으로써 수용자들의 사회적

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이 판매되어 그 수익금이 각 재소자들에게 적립되도록 누진제도를 시행하여, 향후 출소 후에 누진된 적립금을 찾아 사용하거나 본인 의사에 따라 그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와 같이 재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가(代價)를 지급하는 누진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작품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될 것이다.

4.2.3. 외부전문가 초빙 재소자 및 교도관 정기교육 실시
관람객들은 매년 출품되는 '교정작품전시회'의 작품을 분야별로 다양한 소재와 새로운 제작기법으로 재료의 특성을 살리는 수준 높은 작품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각 분야에 맞는 특강 및 재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교도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자기발전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더불어 위촉받은 민간단체의 교정위원들도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수용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4.2.4. 개성을 살리는 현대적 디자인 작품 출품 장려

사진이나 서양화 등에서 약간의 개성이 드러난 현대적인 작품이 출품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출품작들은 개인의 독창성을 배제한 전통공예 전승의 재현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며 일반인들의 구매의욕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출품작가의 개성이 돋보이는 현대적인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매의연한 생각을 과감히 탈피하여 개성을 살려주는 디자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2.5. 교도소간 정보 교류 문제 해결

매해 출품되는 작품을 보면 어느 일정 지역의 동일 교도소에서 마치 맞춤 품을 기계로 찍어낸 듯한 동일한 작품이 나오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교도소에서 똑같은 선비 상(床)이 10여 점 나오기도 하고, 어느 교도소에서는 똑같은 도자기만 출품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도소간 정보교류를 통한 지도를 함으로써 다양하고 각각의 개성을 살리는 작품이 출품되도록 유도

해야 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소규모의 작품을 많이 출품하게 하는 방법도 교도소간 교류를 통하면 충분한 재료와 작품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결 론

교정교육의 목적은 심리적인 반성을 하여 범죄자에서 비 범죄적인 행동유형으로 전향토록 하는데 있다. 수형자의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자주적으로 극복시키고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여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갱생시키는 교정교화가 필요하다. 이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의식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교정의 최종 목표이다. 그 일환으로 차원은 높되 수형자들의 처지와 특기·능력 등의 적성에 따른 수준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그릇된 심성을 순화하고 근로정신의 함양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심신을 단련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초기 교정교육이 종교감화와 문맹퇴치에서 벗어나 이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법무부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교정작품전시회'는 43회가 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외국의 선례가 없다시피 한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였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정기관 및 지역사회의 선도단체 시설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정작품전시회'가 보여 지는 전시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화의 일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교화를 통한 재소자들의 변화와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정착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열린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시회를 통한 재소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논자가 분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안한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발전적인 '교정작품전시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사항으로 첫째, 교도작업의 경우 수용자의 직업훈련 및 국가기능 인력양성이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취업이 용이한 분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출소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정작품전시회'의 작품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목공예작품, 금속공예작품, 한지공예품 등의 전시를 확대하여 전시 자체의 관심과 구매의욕을 촉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보라미장터의 활성화를 통해 관람객을 유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향후 '교정작품전시회'는 일반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교도관과 수용자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자기개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정책시행 주체와 함께 상호 역할분담을 통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한다면 전시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여기에 수용자들의 교도작업 활성화를 통한 좋은 제품이 생산되는 삼위일체를 이룬다면 더욱 발전되고 차별화에 성공한 '교정작품전시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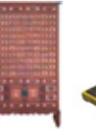
사 사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참 고 문 헌

김성화. 2006. 수형자 교정교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8쪽.
 박영태. 1990. 재소자 교화의 현황과 개선 대책. 법무연구(법무연수원). 233쪽.
 법무부 교정본부. 2010. 『대한민국 교정사』. 98, 188, 200, 664, 679쪽.
 법무부. 1990. 외국의 교정제도. 215쪽.
 법무부. 1990. 재소자 교화의 현황과 개선 대책. 72쪽.
 법무부. 2009-2014. 제38회~제43회 '교정작품전시회' 도록.
 송태호. 2001. 미국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 교정연구. 13: 31-55.
 조도현. 2015. 수형자 교정, 교화의 실질적인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19쪽.
 최광진. 2013.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31쪽.
 Clements Bartollas. 1998. Correctional Treatment, Theory and Practice. New Jersey: Prentice-Hall.

부록. 제38회~제43회 ‘교정작품전시회’ 수상작(2009년~2014년)

제38회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제39회 춘천문화원 금병전시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제39회 KBS 광주방송국 1층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제40회 과천 시민회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제41회 과천 시민회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제42회 과천 시민회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제43회 과천 시민회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